

광주문화재단 토요일상설공연 '토토전' 라인업 공개

13일 전통문화관서 개막
1회차 '케이소리' 무대 등
11월까지 매주 30회 공연
연희놀이 프로그램도 다채

광주문화재단은 2012년을 시작으로 올해 13주년을 맞이한 토요일 상설공연이 13일 개막한다고 밝혔다. 광주문화재단 토요일 상설공연은 토.토.전.(토요일, 토요일은 전통문화관에서 놀자!)을 슬로건으로 누적 관객 수 16만 명을 돌파하며 광주시 대표 전통 상설 공연으로 자리 잡았다. 2024년 토요일 상설공연의 작품 라인업을 공개한다.

올 시즌은 '시민이 있는 문화·예술'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 및 함께 누리는 문화 포용 서비스 제공을 사업 목표로 삼아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시민의 토요일을 전통예술 공연과 체험으로 책임지는 '토요일 상설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13일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개막하는 '토요일 상설공연'은 주차별 주제형 공연으로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통을 올곧게 잇는 전문예술가(단체) 판소리·산조, 국악창작, 연희·무용 21팀과 9인의 광주시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의 초청 무대



광주문화재단 토요일 상설공연 '토.토.전.'의 올해 첫 무대가 13일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개막한다. 사진은 지난해 공연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로 구성된다. 매주 장르를 다르게 구성하면서 상설 공연의 특색을 발현할 예정이다.

매월 첫주는 판소리·산조 무대가 펼쳐지며 오다나·박정진(5월4일), 주현주·성유미(6월1일), 김다정·하은비(7월6일), 강완규·이은숙(8월3일), 신혜인·정민조(9월7일), 김근희·정인선(10월5일), 소민영·홍진진(11월2일)씨가 출연한다.

매월 둘째 주는 국악창작 무대로 케이

소리(4월 3일), 예락(5월11일), 창극프로젝트소리지다(6월8일), 국악콘텐츠작소 나뉘(7월13일), 부나비즈(8월10일), 타악집단지우(9월14일), 도도소리(10월12일)가 출연한다.

매월 셋째 주는 연희·무용 무대로 예술단 다드미(4월 20일), 연희예술공간 타:놀(5월 18일), 나르샤 이남치(6월 15일), 쿤스터 댄스 컴퍼니(7월 20일), 돌움무용단(8월17일), 서울경기춤연구회

(9월21일), 풍물세상 굿패마루(10월19일)가 출연한다.

매월 넷째 주·다섯째 주는 무형문화재 무대로 방성춘 동초제 춘향가(27일), 최연자 강산제 심청가(5월25일), 이순자 춘향가(6월 22일), 황승욱 가야금 병창(6월29일), 문명자 가야금 병창(7월27일), 용전들노래보존회(8월24일), 광주전통불교연산회(8월 31일), 김선이 동초제 흥보가(9월28일), 이영에 가야금 병

창(10월26일)까지 총 30회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매주 토요일 오후 1~3시까지 전통문화관 솟을대문, 너털마당 등에서는 (사)전통연희놀이연구소와 함께하는 '고구려벽화 속 연희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5세기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에 담겨있는 다양한 연희를 현실에서 재현하여 이러한 놀이와 우리 민속놀이를 함께 광주 시민들이 체험하고 놀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3일~11월 2일 매주 토요일 30회 공연을 진행하는 전통문화관 토요일 상설공연은 매주 토요일 전통문화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무등산을 배경으로 전통 한옥에서 즐기는 품격 있는 공연"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일회용품 줄이는 제로웨이스트 행사 진행을 위해 공연 포스터는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뿐 아니라 ESG 경영의 새 화두인 문화 다양성 확대와 평등 실현 등을 위해 현장에서 디지털 배너에 공연 제목과 곡 소개를 각각 국문, 영문, 중문으로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무료로 진행되는 전통문화관 토요일 상설공연은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놀이·체험 함께 '아시아로 떠나는 문화여행'

ACC재단, 어린이체험관 새단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체험관 상설전시 일부 영역을 새 단장하고 최근 공개했다.

어린이체험관은 '자연과 생활', '지식과 문명', '감각과 표현' 등 세 가지 주제로 한 상설전시를 통해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접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번 신규전시는 '아시아로 여행을 떠나요'를 주제로 어린이체험관 체험에 앞서 아시아의 기본 정보를 어린이 스스로 찾아보며, 자신만의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어린이체험관에 입장하면 어린이 관람

객들은 아시아가 세계 속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시아에는 어떤 나라가 있는지, 아시아의 세계유산과 랜드마크는 무엇이 있는지 등 아시아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주제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으며 여행을 준비하게 된다.

이어 NFC(근거리 무선통신) 티켓을 이용해 여행 준비물을 챙긴 후 원하는 아시아 국가로 여행을 떠나거나, 미디어 보드게임을 하며 아시아 5개 권역의 세계유산을 탐험해 보는 등 아시아에 대해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아시아 세계유산과 랜드마크를 활용한 핸드온 체험물과 게임형 콘텐츠 등을 전시장을 마련해 학습효과와 재미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어린이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아시아 문화를 즐겁게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선보일 것"이라며 "전시 콘텐츠와 연계된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장료는 만 4세~14세 미만 어린이 5000원, 만 14세 이상 3000원이다.

한편 ACC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소재로 놀이와 체험·예술적 창작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어린이 문화발전소다.

도선인 기자

하루.K 등 30여명 참여 '드로잉마켓 ON and ON' 판매

28일까지 예술공간 집서 진행

나들이 가기 좋은 봄날, 다양한 드로잉 작품들을 한데 모은 전시가 열린다. 광주 동구 장동 예술공간 집서에서 열리는 '드로잉마켓 ON and ON'으로, 국내외 작가 30명이 참여하고 이들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드로잉'은 작품의 첫 시작 지점, 다양한 변주의 실험, 대체로운 형식의 생성 지점이기에 작품세계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전시는 '드로잉'의 성격을 가진 작품들을 한데 모아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상상하고 작품을 비교하며 미술의 즐거움을 즐길 수 있다.

전시 제목인 '드로잉마켓 ON and ON'은 여러 의미를 함축한다. 드로잉마켓 전

시는 지역과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을 지역 미술애호가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다. 온라인 마켓도 동시에 진행한다. 전시작은 오는 16일부터 예술공간 집의 온라인스토어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

참여 작가는 고차분, 권예솔, 김수진, 김유섭, 김종만, 박지호, 백미리내, 서영기, 신 철, 신호운, 야요이쿠사마, 윤상하, 윤준영, 이건용, 이매리, 이세현, 이인성, 이조흠, 임남진, 임현채, 정명숙, 정승원, 정직성, 하루.K 등 30여 명이다.

예술공간 집 스마트스토어 (<https://smartstore.naver.com/artspacehouse>)에서도 작품 구입이 가능하다. 전시는 11일부터 28일까지며 월요일은 휴관. 자세한 내용은 (062-233-3342)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선인 기자**

북구문화센터, 김주홍과 노름마치 '허튼소리' 공연

25일 브랜드 공연 '콘서트인 북구'

광주 북구문화센터는 브랜드 공연 시리즈 '콘서트인 북구'의 올해 첫 공연으로 김주홍과 노름마치의 '허튼소리 Corea Beats'를 오는 25일 선보인다.

공연의 타이틀인 '허튼소리'는 함부로 지껄이는 부정적 의미가 아닌 지속적인 학습과 예술 행위 속에서 번뜩이는 영감들을 무대 위에서 실험해보는 고뇌와 기행의 과정을 의미한다.

김주홍과 노름마치는 구음장단을 활용해 새로운 음악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여러 시도를 선보인다. 고려가요 가사를 차용하고 만주별판을 누렸던 기마민족의 호방함을 상상하면서 찬란했던 과거를 그리기도 하고, EDM 사운드와 전통음악의 만남을 통해 동시대성을 반영한 도시국악을



김주홍과 노름마치. 북구문화센터 제공

구현하고 자연의 카오스와 질서를 음악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자유를 추구하는 미래를 꿈꾼다.

김주홍과 노름마치는 해외 65개국 220여개 도시 축제와 무대에서 한국음악을 소개함은 물론 아티스트들과 협연을 통해 한국전통음악의 정체성을 알리고 있다. 2014년 유럽 최대 뮤직마켓인 '월드뮤직

엑스포(WOMEX)'를 통해 그들의 음악적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노름마치 김주홍 예술감독은 "그간 사물놀이의 타악기를 기반으로 창제작을 했던 방식에서 노래, 구음장단, 키보드, 베이스 등 선율을 강조한 구성과 쉬운 노랫말을 통해 관객의 감상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며 "EDM 사운드, 대중가요, 명성음악 등이 접목되어 장르를 정의 내리기가 어렵지만 음악적 확장을 위한 시도에 재미를 느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연은 오는 25일 오후 7시30분, 입장료는 전석 1만원이다. 관람 연령은 7세 이상이며 북구문화센터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본 공연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공모에 선정, 문체부 후원을 받아 진행된다. **도선인 기자**